

### 남편은 도서관장 아내는 재능기부

# ‘책책빵빵’ 행복한 도서관 부부

#### 최동호 전남도립중앙 부부의 이동도서관 이야기

“두메마을~ 섬마을~ 찾아가는 도서관 책책빵빵, 책보따리 꿈보따리 친구들이 함께 와 나누자...”-전남도립도서관 이동도서관 로고송 중.

남편은 도서관 관장으로 일하고, 아내는 이동도서관 로고송을 작사·작곡한 이색 부부가 있다.

전남도립도서관 최동호(58) 관장과 아내 오혜성(53)씨는 여느 부부와는 달리, 아침 식사 후 함께 도서관으로 출근한다. 공무원인 최 관장의 도서관 출입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내는 지난해부터 남편을 따라 재

능기부를 위해 도서관을 찾고 있다. 오씨가 본격적으로 도서관과 인연을 맺은 것은 이동도서관 차량에 붙일 이름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뒤였다.

38인승 중형 버스를 개조한 이동도서관은 실내에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1200여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다. 차에 책을 싣고 도내 섬, 산간, 오지 주민을 찾아 도서 대출, 책 읽어주기, 영화 상영 등을 진행하는 일종의 독서 프로그램이다.

도서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이동도서관의 새로운 이

남편 도서관서 봉사하며

로고송도 만들어

오지마을 돌며 ‘책 보세요’

을 공모했고, 오씨가 남편 몰래 ‘책책빵빵’(册册房房)이란 이름을 응모했다. 책방과 차량 경적 소리가 뒤뉘 뱅뱅의 합성어인 ‘책책빵빵’은 최종 심사에 올라 도서관 이용객들의 현장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또 도서관 직원들 사이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책빵빵’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로고송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예산이 빠듯해 따로 로고송을 제작할 수 없게 된 최 관장이 대학에서 오르간을 전공한 오씨의 등을 살짝 떠밀었다.

편곡과 작곡 공부를 했던 오씨는 1주일 만에 나팔과 경적 소리가 곁들여진 경쾌한 행진곡풍의 ‘책책빵빵’ 로고송을 만들어냈다.

오씨는 “오르간 연주를 위해서는 기존 곡을 편곡해야 하기 때문에 작곡·편곡 공부를 했는데 오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말했다.

이 로고송은 지난 1월 해남 송호마을과 구례 상사마을 등 4개 마을에서 마련된 시범 운행에서 데뷔 무

대를 가졌다. 또 지난 8일 도서관에서 열린 ‘책책빵빵’ 출범식에서도 100여명의 참석자들이 로고송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최 관장은 “오지 마을을 돌며 물건을 파는 차량에서 노래를 들려주는 것을 보고, 이동도서관에도 로고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시범 운영을 해보니 반응이 좋았다”면서 “로고송을 전문 합창단의 목소리로 녹음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로고송 작곡뿐 아니라 도서관 홈페이지 관리와 디지털도서관 운영 등의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틈틈이 웹디자인 공부를 해 자격증을 딴 오씨는 도서관 운영 인력이



남편이 근무하는 도서관의 로고송을 만든 오혜성씨가 남편 최동호 관장과 12일 전남도립도서관 앞마당에 세워진 이동도서관 차량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전남도 제공)

부족하다는 소식에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는 재능기부 단체인 ‘도서관 친구들’에 가입해 도서관 업무를 돕고 있다.

오씨는 “재능 기부라고 해서 딱히

준비하는 것은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나눠 주는 것이며 남편이 근무하는 기관의 일을 도울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다”고 소개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시민사회단체·지역 예술가 숨은 후원자

#### 故 김국용 회장 숨은 일화

5·18때 민주화 인사들 피신시켜... 회사 공식 휴무일로

전세 비행기로 직원가족과 효도관광... 직원 복지 최고

‘광주 광(光)산업 개척자’, ‘시민사회·문화예술 후원자’ ‘위대 파워(Wording Power) 전문가’ 그를 지칭하는 단어는 단순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또 나올 수 있을까?”라며 탄식했다.

지난 11일 오전 노환으로 타계한 故 김국용 무등·우리로광통신 회장은 성공한 기업가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평생 바쳐 실천했다. 고인의 남모를 선행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광주YMCA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손사래’ 한번 치지 않았다. NGO 단체도 베풀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용돈을 줬고, 어느 단체가 돈이 궁하다 싶으면 봉투를 슬며시 건넸다.

송기숙 전 전남대 교수가 해직 당했을 때, 윤용규 전 전교조 위원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도 고인이었다. 남

몰래 지역 예술가들의 제작비를 지원한 것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최합 전 전남대 교수는 “김 회장에 도움받은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며 “회사 직원들의 복지도 광주에서 첫 번째로 짙은 정도로 모범적인 경영인이었다”고 술회했다.

정찬용 전 청와대 수석은 “비행기를 전세 내 직원과 직원 부모를 데리고 효도관광을 간 적이 있을 정도로 사원들을 끔찍이 아꼈다”며 “오래전 200여 명의 직원 모두에게 한자리에서 술을 돌릴 정도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직원을 챙겼다”고 전했다.

5·18민주화운동과도 관련이 있었다. 당시 계엄군의 예비검속을 피해 민주화인사들을 자신의 차로 다른 지역에 실어날랐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무등과 우리로광통신은 최근까지도 5월18일이 회사 공식 휴무일이었을 정도다.

이동규 무등 이사는 “5월18일

무렵엔 사내에서 묵념을 하고 정신을 기리는 행사를 가졌다”며 “5·18 관련 직원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인은 평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도전하라’는 말을 즐겨했다. 이동규 무등 이사는 “들 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며 실패를 장려했다”고 고인을 추억했다. 긍정을 강조한 것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안평관 YMCA 사무총장은 “재단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항상 ‘위기가 아닌 적 있었어나’라고 되풀이하며 후원하는 단체에 꼭 ‘실패를 넘어서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한국과학기술인 조영석 실장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사들은 항상 김 회장의 의견을 듣고 싶어했다”며 “그의 말 한마디는 회의의 ‘중심’을 잡는 큰 힘이였다”고 말했다.

고인의 장례식은 회장으로 치러진다. 14일 발인을 마친 장례행렬은 광산구 월전동 우리로광통신 광장에서 영결식을 가질 계획이 있다. 고인이 일군 무등과 우리로광통신의 직원들이 조사를 영전에 바친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 이낙연·주승용, 전남지사 경쟁 벌써 후끈

지역행사·모임 등 참석 활발... 민심잡기 안간힘

차기 전남도지사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연합 이낙연(4선)·주승용(3선) 의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3선인 박준영 전남지사가 내년에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무주공산’이 될 차기 도지사 자리를 놓고 두 의원의 경쟁이 본격 접화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민주당연합 전남도당에 따르면 유력한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두 의원은 내년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전남지역 민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두 의원은 지난해 대선 전부터 공식적인 모임과 회의 등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다 앞으로 민심잡기 행보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의원과 주 의원은 지역구가 각각 전남 서부(영광·함평·장성·담양)와 동부(여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자칫 지역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상대 지역을 오가며 지역 행사와 모임 등을 철저히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현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남 일선 시·군 예산 담당공

무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국회활동을 겸한 ‘예비 도지사후보’로서 행보를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로서 12일부터 14일까지 전남 일선군을 돌며 지역민원을 청취한다. 주 의원은 ▲12일 해남·강진·장흥 ▲13일 구례·담양·화순·고흥 ▲14일 신안·무안·함평·영광·장성 등 전남 22개 시·군의 절반이 넘는 13개 군을 직접 찾아 주민 숙원 사업인 사회간접자본(SOC) 현황을 챙기는 강행군을 펼칠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한 관계자는 “두



이낙연

주승용

의원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며 “도지사 자리가 무주공산이 되고 지역이 넓어 광주시장 선거와 비교해 초기에 경선이 과열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고교(광주일고) 선출배 이면서 출신지와 상임위원장 경력이 다른데다 이 의원은 신문사 기자 출신이고, 주 의원은 도의원과 군수, 시장 등을 역임하는 등 성장배경도 달라 도지사 경쟁 구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시장 선거는 ‘정중동’

羨시장 재선 도전 유력... 강기정·김동철·이용섭·장병완 거론

내년 광주시장 선거는 조기 경쟁이 불붙는 전남지사 선거와 달리 아직까지 뚜렷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일부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사들도 있지만, 전남과 달리 광주는 정치권 변화와 여론에 민감해 안철수 전 교수의 향후 정치 행보 등 중앙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특히 농촌이 많은 전남과 달리 지

역이 좁아 ‘바람 선거’도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군들이 조직을 조기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강 시장은 당분간 시장 현안의 성공적인 추진에만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5기 초반 투자와 임찰 과정 등에서 일부 잡음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제2순환도로 법적 승소, 수출 등에서 굵직한 성과를 이끌어내

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강 시장의 재선에 도전해 조직이 탄탄한 강기정(3선) 강 시장에 아깝게 패배한 이용섭(재선) 의원, 기획재정부 출신인 장병완(재선) 의원이 대항마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김동철(3선) 의원의 행보도 주목된다.

그러나 강기정·이용섭 의원 등은

5·4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지도부 선출이 끝난 뒤 당내 역학관계에 따라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월 재보선을 계기로 안철수 신당 등 정치권 재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3 후보’ 부각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가 예상된다.

민주당 광주시장의 한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정치권 변화에 민감하고 표심이 역동적이지만 ‘바람’의 영향은 받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있다”며 “올 하반기 이후에 구제적인 후보군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부동산 실전투자과정

부동산경매, 부실채권(NPL), 팽처리아파트 등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 박사(부동산전문)**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수상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KBC-TV 아침마당 생활속 출연자의 공무원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 회 이상 특강

▶ 초창강사 명지대 문정수교수, 동강대이영무교수, 김주한 전세부시장 등

▶ 선착순 마감(소그룹 지도)

일시	매주(화) 19시~22시 (4개월)	매주(목) 19시~22시 (4개월)
수강료	20만원	18만원
연락처	교육대 062)520-4243	전남대 062)530-3873

특전 : 1.자격취득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경매분석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부동산 강의 및 컨설팅 상담  
**010-5613-1808(정영수 박사)**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 Schnee Pang

서울에서 난리가 난 대박사업!  
저렴한 가맹비 및 창업비!  
2~3평 소형으로도 창업가능!  
조리가 필요없는 단순진열판매!

1호점 **슈니팡 총장로점** (광주우체국앞)  
3월 22일(금) 14시

• 광주 우체국

공전제과 **개업시은품증정 3개이상 구매시 망치증정**  
선착순 22일 50개, 23일 50개 한정

- 2호점 **메기박스** 광주점 — 4월 5일(금) 14시
- 3호점 **전남대점** — 4월 19일
- 4호점 **전남 순천점** — 4월 20일
- 5호점 **전남 함평점** — 4월 26일
- 6호점 **광주 상무점** — 5월 3일
- 7호점 **광주 수완점** — 5월 3일

줄을 서서 시먹는 (주)슈니팡코리아  
**광주·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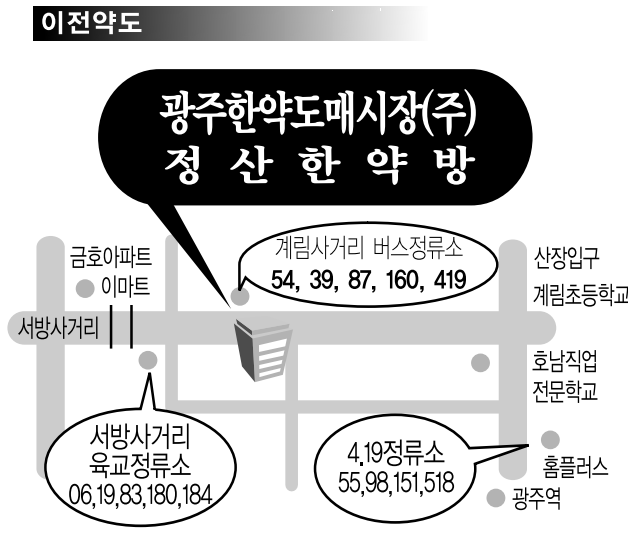


진료문의 062)227-7575

## 이전안내

##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국산·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